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갑니다. 한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 가면서 일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각자 서로가 수고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셈일까요?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장만했더랍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도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인가?"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점잖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10분씩 쉴때마다 도끼 날을 갈았다네." 당연히 이길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끼날 무디어 지는 줄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히만 낸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로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해도 말씀의 검이 무디어 지는 줄도 모르고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는 말과 같이,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의 날을 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길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년 반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면서,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살아도 사는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간혹 들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살맛 날텐데... 큰 집에 살면 살맛 날텐데...

자녀가 속색이지만 않으면 살맛 날텐데...

조금만 더 건강하면 살맛 날텐데... 이 문제만 없으면 살맛 날텐데...

그런데, 정말 지금 나를 속삭이는 문제만 사라지면 살맛 날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가 사라져도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여러분을 괴롭힐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의 있음"에 있지 않고,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없음"(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를 매일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목사님, 그야... 당연히 살아... 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질문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든 안믿든 그 자체로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느냐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정말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찌르고, 쪼개고,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13절에는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난다/날날이 들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여기서 살아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자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 뜻은 ‘숨쉬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다, 현재의 삶을 기뻐하다,’ 혹은 ‘진정한 삶을 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말해서, 성경 말씀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드는데요. 성경 말씀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한데요. 성경 말씀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준데요. 또 성경 말씀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으로 받아 보세요. 지금! 나의 삶에 2021년 10월 10일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나’ 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공급받아 사는가? 묻는거예요. 그렇겠죠... 라고 하시 마시고, 확실하시나구요!

여러분은 살아있음을 어디서 찾으세요? 무엇을 하실 때 느끼십니까?

오늘날에는 정말 우리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가령, 요즘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사람은 의식하지 않을 때 평균 4-5초에 한번 눈을 깜빡인데요. 일상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을 10분동안 관찰했더니, 167(백예순일곱)번 정도 깜빡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10분 동안에 64(예순네)번 밖에 깜빡거리지 않았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할 때 깜빡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눈이 건조해지구요, 눈물의 양도 현저히 줄어 들고,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보면 시력도 떨어지구요, 안구 건조증도 많이 오게 되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거든요!! 시시각각 우리의 시선을 끝만큼 움직임이 많거든요! 요즘엔 이모티콘도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움직임이 많으니까, 눈을 깜빡거릴 여유도 없어요.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니까요!

한번은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봤던 만화영화 즉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시청해 봤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신나서 아이들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말을 못알아 들어서 재미없는게 아니라, 요즘 애니메이션은 얼마나形形色색 화려하고, 세련되고, 움직임도 많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옛날 만화영화는 너무 단조로워요. 움직임도 별로 없어요. 애니메이션 말의 뜻이 뭘니까? 살아있음 혹은 생기기라는 뜻이잖아요. 말은 애니메이션이지만 요즘 세상에 비하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말씀이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화려한 세상에 살다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는 순간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세련되고 변화도 시시각각있고 움직임이 많은 바쁜! 세상에서 눈을 좀처럼 떼기가 힘들어요. 이에 비해, 성경 말씀은요, 지루해요. "이거 읽는다고 뭐가 정말 달라지겠어? 재미도 없는데...?" 세상이 살아 있지, 성경 말씀이 살아 있지 못한 거예요. 많은 이들의 삶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 이런식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속삭이는구나!" "지루한 말씀 뭘 드러다보고 있어? 살아있는 세상, 화려한 세상을 봐!" 우리의 정신을 빼 놓아요. 그것도 쓱~ 빼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땔 수 있어야,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건조해지지 않게 되요. 세상에 것에서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여전히 찾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나눴구요,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굶을 대로 굶은 환부가 있으면요, 그 부위를 찢거나 도려내지 않고도, 고름을 짜내지 않고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찢고 짜내야 깨끗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인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와 욕망의 찌꺼기마저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난 죄인 중에 괴수임' 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용 메스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죄와 욕망의 고름 덩어리를 가차 없이 찢고 도려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매일 매일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17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요.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요. 그래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주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절저하게 빼실 때가 있으셔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가르치심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도 믿어 왔던 것, 준비했던 것, 의지했던 것 확 날아가는 경험! 다들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따지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글썄요. 어찌보면, 대단한 믿음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해보고,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삶에 와닿게 될까요? 막연한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적용이 될까요? 해서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모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성경공부 할 때,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요. (눈치체신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모르나고 핀잔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고, 우리 안에 개인차도 많이 존재할 겁니다. 해서 좀더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좀더 대화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참여를 보면서 제가 계속 중에 있어요.) 이러한 저의 의도는 여러분이 직접 고민해 보고 여러분의 말로 답을 찾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찢고 고름을 짜는 건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고름을 짜는 건 괴로움을 주는게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치유가 목적이고, 새생명이 목적이고, 성숙한 삶이 목적이에요. 도대체 오늘의 허물이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내일의 생명이 오늘보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해서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거하는 사

람에게 말씀에 의한 찢어짐은 아픔이 아니라 새 생명의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알게되요.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 물질들도 저희들 삶에 생명력을 주는 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뿐입니다. 덧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십니다.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낙망하고, 크게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생명력있다 인정하시면!),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을 가르치고, 때로 책망도 하시고, 인도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설 때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식이나 교양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적 계율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한 것이고, 생명이고, 약속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꾸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히브리서 결론에 보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게는 원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뻔뻔스럽게’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저히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그 피의 공로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말 믿고, 순종하고 사신다면 여러분 삶에 변화는 과거에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시고,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